

나 스무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 
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 
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

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 
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 
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

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 
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 
믿을 수 없었지  
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 
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 
고개를 저었지

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 
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 
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

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 
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 
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

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 
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 
믿어 보기로 했지  
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 
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

## 고개를 끄덕였지

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 
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 
알지 못했지 그 땐 몰랐지  
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 
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 
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 
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 
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 
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 
내 마음 속 작은 이야기  
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

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 
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 
그대 믿는다면

마음먹은 대로 (내가 마음먹은 대로)  
생각한 대로 (그대 생각한 대로)  
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 
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 
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